

수능 대비 시험장 관리 '만전'

도교육청, 관계자 업무관리지침 전달 회의... 수험생·감독관 유의사항 안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10일 업무관리지침 전달 회의를 갖고,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험지구교육청 과장 및 장학사, 63개 시험장학교 교감·교무부장, 7개 별도·병원시험장 담당자, 과장감독관, 중앙협력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참석자들에게는 수능 업무관리지침과 부정행위 방지대책, 감독관 유의사항, 수능 시험장 운영 및 방역 계획 등을 꼼꼼하게 안내했다.

먼저, 올해 수능은 17일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도내 6개 시험지구, 총 70개 시험장에서 일

제히 치러진다. 응시인원은 1만7,100명이다.

다만, 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은 오후 8시25분,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오후 9시48분에 시험이 종료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6시30분부터 입실 가능하며,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학교장 발급 학생증)과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수험생 예비소집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출신고등학교나 응시원서 접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개별접수자)에서 진행된다. 수험표는 이날 교부된다.

수험생은 수험표 교부 시 배부되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시험장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험생은 △시험장 내 마스크 착용 △점심식사 및 개인 음용수 준비 △점심시간 가림막 설치 △코로나19 유상증상 확인 시 분리시험실에서 시험 실시 △확진 시 도교육청 수능상황실(239-3721~4)과 보건소로 반드시 연락해야 한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는 수험생의 지체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험실당 응시자 수를 24명 이하로 줄여 수험생 간 간격을 유지하고, 5개 시험실당 1명의 복도감독관을 배치해 모든 복도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를 보급한다.

또 복도감독관은 수험시간 중 화장

실에 가는 수험생이 있을 경우 사용할 칸을 미리 확인하고, 시험실 입실 때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휴대물품을 점검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소지 자체로 부정행위 처리된다. 휴대전화, 스마트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이에 해당된다.

주현화 학교교육과정은 "수능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과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동안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글로벌 Top 100 이끌 것"

전북대 총장 선거 출사표' 양오봉 교수 "연구·사업비 220억원 유치 역량으로"



전북대학교 양오봉 교수가 제19대 총장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따르면 양 교수는 지난 9일 총장 후보등록을 마치고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 그는 제17·18대 총장 선거에서 어렵게 고배를 마셨으나,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열정을 불사르기로 했다.

미래를 이끄는 전북대, 글로벌 탑 100의 비전을 제시한 양 교수는 연구·사업비 220억원을 유치한 역량과 139편(국제SCI 114편, 국내 25편)의 논문, 3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연구역량뿐만 아니라 사업적 안목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준비된 세일즈 총장'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양 교수는 "교수는 연구와 강의만, 직원은 업무만 학생은 공부만 전념할 수 있게 넉넉한 제정을 확보할 것"이라며 "특히 학생들의 취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부총장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세계 100위권 대학 진입, 대학회계 2,000억원 추가 확보, 연구비 2,500억원 시대, 대학발전기금 500억원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교수의 연구 동기와 역량 강화를 위해 논문계경비 확대, 직원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4+1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근무일 5일 중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

는 여건 조성, 학내에서의 빈값 식사와 커피 제공 등이 있다.

그러면서 그는 전북대학교가 민주의 메카인 점을 살려,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가칭 '민주화 공원' 조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꼭기에 맞서 자신을 희생한 전북대 출신 민주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신념과 열정은 전북대학교를 미래로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민주화의 씨로 미래의 꽃을 피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학과 지역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5년 간 약 2,000억원이 지원되는 지역혁신사업(RIS)의 유치, 도내 14개 시·군지역발전사업(전북대 6학기+해의 대학 2학기) 운영, 외국인 유학생의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끝으로 양 교수는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는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하나의 축제야 하며, 후배, 비방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학에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면서 "화합과 통합을 위해 여덟 명의 후보가 깨끗한 선거, 상호비방 없는 건강한 선거를 약속하는 협약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양 교수는 전주교 고려대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새민급위원회 위원·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은성기자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북대학교 옛 총장 관사가 지식기반산업진흥원으로 새 단장한다. 10일 김동원 전북대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한옥마을 전북대 옛 총장 공관 개방

지식기반산업진흥원으로 '새 단장' ... 전시·휴식공간 마련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북대학교 옛 총장 관사가 '지식기반산업진흥원'으로 새 단장하고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된다.

이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자체 재원(운영 외 수익)으로 2021년부터 1년여 간의 리모델링과 증축 공사를 마치고, 10일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새롭게 문을 연 지식기반산업진흥원은 연면적 738㎡,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역민들이 편히 머물면서 대학의 성과와 보유 기술 등을 볼 수 있도록 내부도 꾸몄다.

1층에는 대학의 역사와 현황, 성과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고, 특히 한옥마을과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인 전북대의 연계성 및 위치적인 특수성을 감안해 '한옥을 품다'를 주제로 한 한옥 전시 공간도 마련됐다. 또한 2층에는 전북대가 보유한 연구 성과물과 지식 자산을 전시·홍보하기 위한 산학협력 플랫폼과 연구발표, 토론, 회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세미나실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민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지하 1층에는 대학 구성원과 외부 작가 등의 예술작품을 전시

할 수 있는 전시관이 조성됐다.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해 전시공간을 찾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소중함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개관 기념전으로 조호익 전북대 대학원생(목재응용학과과 박사과정)의 전통 한지 공예전이 이어진다.

김동원 총장은 "한옥마을에 있는 우리대학의 공간을 지역민, 관광객과 함께 공유하고, 더불어 대학의 지식기반 콘텐츠도 알려갈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마련돼 기쁘다"며 "이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북대의 우수성을 알리고 동시에 지역 관광산업 부흥에 일조하고, 나아가 문화예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11~12일 학교급식 컨설팅단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1~12일 이틀 동안 전남 진도 읍비치 진도 콘도리조트에서 2022 찾아가는 학교급식 종합컨설팅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종합컨설팅단은 저경력 영양(교사)의 학교급식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분야별 전문자를 중심으로 학교 급식 현장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오진영 한솔초등학교 수석교사의 '효율적인 수업컨설팅 방안 강의'의 △이영희 삼리초등학교 소소장의 바움알기, 나누기 다루기(마음행진) 집단상담 △컨설팅 사례나눔 △분임토의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상계사, 윤림산방)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서기 인성건강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급식 컨설팅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학교급식 컨설팅 운영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급식 컨설팅단이 저경력 영양(교사)의 학교급식 위 자주적 관리능력 향상과, 영양 식생활교육 역량강화에 기여할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호남·제주권 전문대 LINC 3.0 협업 전시회 '우수상'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단장 최승훈)은 지난 9일 순천지방대 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22년 호남·제주권 전문대 LINC 3.0사업 공유·협업 성과전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호남·제주권 LINC 3.0 사업 협의회가 주최하고 순천제일대학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성과전시회는 전주비전대학교를 포함한 10개 대학이 참여했다. 각 대학은 지난 1년간 LINC 3.0 사업을 통해 도출된 캡스톤디자인 등 우수 성과를 출품해 그 성과를 서로 공유하는·협업의 장으로 이뤄졌다.

이에 전주비전대학교에서는 RIFD 및 날씨 정보를 이용한 여담이 창문'의 다양한 작품을 출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이 도입된 참신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중 대학 캠퍼스 3D 공간 모델링 및 VR 콘텐츠 구축은 높은 가상현실 구현도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승훈 단장은 "이번 성과 전시회를 통해 학생들이 타 대학과 성과를 공유해 자신들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 타 대학과의 공유·협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9일 임실에 위치한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를 찾은 서거석 교육감이 교사와 학생들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식품분야 명문고 조성 지원 노력"

서거석 교육감, 한국치즈과학고 찾아 현장간담회

서거석 교육감이 9일 임실에 위치한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교장 박강덕)를 방문해 교사와 학생들을 격려하고 시설 보수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한국치즈과학고 교장, 그리고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학교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서 교육감의 방문은 한국치즈과학고에 보수해야 할 시설은 없는지, 또 학생들이 겪는 불편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목적이었다.

이를 통해 이 학교를 한국 최고의 식품 분야 특성과 명문고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한편 1980년 임실서고등학교로 개교한 이 학교는 2012~13년에 각각 치즈과학과와 조리과학과를 신설했다. 2014년 지금의 이름으로 교명을 변경한 후 치즈과학과와 조리과학과를 치

즈조리과학로 통합하고, 올해까지 약 32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박강덕 교장은 이날 서 교육감에게 △기숙사 사감 배치 △기숙사 식비 지원 △운동장 계단 보수 △수목 정비 △산책로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학생은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을 선 채로 실습하면 너무 힘들다"면서 "휴게실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은 "실습공간이 너무 좁다"면서 "실습실이 넓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한국치즈과학고를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 학교를 직접 찾아 오게 됐다"면서 "기숙사 식비 지원이나 운동장 계단 보수, 산책로 구축 등 여러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호텔리어가 일하는 법' |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서울 몬드리안 호텔서 현장교육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학생들이 글로벌 오성급 호텔인 아코르 그룹 서울 몬드리안 호텔에서 현장 업무교육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호텔경영학과 학생 7명은 8~9일 이틀간 몬드리안 호텔 식음료부서와 연회장 국제 콘퍼런스 등 각종 행사와 함께 프론트 데스크 체크인/아웃 시스템에 관한 업무교육을 실시했다.

몬드리안 호텔의 유니폼을 갖춰 입은 학생들은 인사부장의 입사 면접 특강을 시작으로 대학 강의에서 배운 식음료장 서비스와 프론트 업무 등을 직접 실습하면서 글로벌 호텔의 호텔리어가 되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틀간의 업무교육을 모두 마친 뒤에는 몬드리안 호텔 총지배인



(Mr.Taek Behry)이 발급하는 몬드리안 호텔 부서 현장 교육 이수증을 받고 있다.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몬드리안 호텔 인사부 박승영 부장은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학생들은 특별하다. 호텔리어로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실무를 훈련한다. 특히 호텔 현장에서 이들의 업무는 탁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글로벌 호텔 방문 현장 업무교육은 '호텔경영학과 링크3.0 글로벌 취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주대학교 링크3.0사업단의 '링크 3.0 글로벌 취업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며, 현재 호텔경영학과에서는 영어 인터뷰를 통해 선발된 재학생 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손 씻기 · 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